

The Church of Christ, Vol. 45

그리스도의교회

45 ^겨 ^름 ^남

그리스도의 교회 (Online)

제45권

The Church of Christ, Vol. 45

복음으로 부르심 / 3

펴낸 날

2020년 10월 30일

펴낸 곳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8길 57-3

(화곡동)

전화

02) 2607-0645

팩스

02) 2696-1560

인터넷

thechurch.kr / christ.or.kr

이메일

administrator@christ.or.kr

eISSN 2734-1577

Printed in Korea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새번역,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흠정역 등을 함께 사용하며 원문의 뜻을 살리되, 필요에 따라 반점과 온점 등의 부호를 삽입하면서 꺾쇠 안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출판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공: J. C. Choate Publications; World Evangelism; World Video Bible School

후 원: 강남그리스도의교회(서울), 한인그리스도의교회(미국 LA), 김명수, 김무근, 김충기, 이창완.

청사진 확인 / 4

거듭남의 목적

성경 도표 / 10

교회를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림자와 실체 / 11

유월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

함께 찾는 답 / 13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을까?

삶을 바꾸는 성경공부 / 15

긍정적인 삶 가꾸기

섬기며 사는 삶 / 20

사역자의 영적 생활 중간 점검

새 노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 66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101-356564

예금주: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추가문의: 02) 2607-0645

요한복음 3:1-9(새번역)

- 1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 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 4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 6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 7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 9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목적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불필요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요 3:3)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담겨 있었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없으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거듭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거듭남’은 명령이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육신의 삶을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영적인 삶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헬라어에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므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하는 대신, 예수께서는 거듭남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거듭남’이라는 말 만큼이나 불분명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육신에 관한 의미에서 벗어나 영적인 의미를 향하게 하셨고, 육신의 거듭남이 아닌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

씀하셨다.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육적인 것이 협력 내지는 조력하는 가운데 영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께서 ‘거듭남’이라는 부르신 것에 담긴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그 과정에 ‘물’과 ‘성령’이 함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물이 영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은 거듭남에 부여된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적인 방편일 뿐이다. 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영적인 결과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물과 성령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 물과 성령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

베드로전서 3:21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것[=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물]이 가리키는 실체인 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본다(헬라어 직역).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침례에는 물이 필요하다.

로마서 6:1-14절 말씀을 보자.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

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베드로전서 3:21과 로마서 6:1-14 말씀을 보면 구원은 복음에 순종하여 침례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이며,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서 계속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은 한 사람의 영혼에게 필요한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 순종하여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목적은, 로마서 6장에 언급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우시기 위함이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거듭남’이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쪽으로 나아가는 일임을 알 수 있다(참조: 롬 6:16).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이러한 모든 변화가 가능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하며, 새롭게 이끄시는 영이 계셔야 한다. 이는 예전에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던 삶과 대조된다. 정리해 보면, 물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수단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안내하실 수 있게 된다. 그 삶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여 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자리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안내하실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수 없다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합당한 삶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합당한 삶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 2).

새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자.

롬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벤전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엡 4: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벤전 2:11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엡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딤후 2:20, 21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예수]의 육체니라”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거듭남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만약 우리에게 거듭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로 드러나야 할 모든 증거가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목적은 물이나 침례에 있지 않다.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려면 변화된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침례받은 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를 받고 난 뒤에야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 (행 2:38). 사도행전 22:16의 권고를 다시 보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결론적으로, 거듭남의 목적은 과거에 지니고 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4:24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거듭난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글쓴이: 파수리

“다 이루었다”

요 19:30

고회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히 12:22-25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의 경야

→ 히 1:1-9; 계 2:1-11
→ 살후 1:1-7; 롬 10:9-10
→ 회개 롬 13:3-5
→ 믿음 요 8:24
→ 들음 요 6:44-45

고전 15:1-4

죽으시고

부활하심

장사되고

엄으심

행 20:28; 고전 6:19; 계 5:9

예비하심

마 3:1-2; 11:10; 4:17

예언하심

사 2:2-3; 28:16; 마 1:21

약속하심

창 3:15; 12:2-3

의도하심

엡 3:10-11; 딤후 1:8-9

천국

살전 4:13-18

벧후 1:10-11

총성

침례 계 2:10-11

고백 벧전 3:20-21

회개 롬 10:9-10

믿음 롬 13:3-5

행 2:36-41

완성하심

딤후 3:15; 엡 1:20-23; 1:3

히 12: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Drawn and edited by Robert C. Lupo
Based on an original hand-drawn chart (#37) by James Huggins
Originally published on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3, pg. 2.

Revised edition (2020)
Translated into Korean by Church of Christ Mission

유월절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두 가지



〈신명기〉 16장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세 가지 중요한 명절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성막(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도시로 가서 세 가지 명절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참석해야 했던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逾越節)과 칠칠절(七七節)과 초막절(草幕節, =장막절)이었다.

유월절에 사용한 무교병

유월절 명절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집에도 누룩이 없어야 했다. 누룩을 집에서 완전히 없애야 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누룩은 거의 항상 부패를 촉진하는 물질로 묘사되며, ‘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전 5장).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명절 유월절 명절 동안 무교병(無酵餅,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일반적 이해에 비추어 보면 신명기 16장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흥미롭다. “유교병[=누룩을 넣은 빵]을 그것[=유월절 희생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3절). 여기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한 추가적인 이유를 밝혀준다. 모세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노예 생활을 언급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서둘러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했음을 강조한다. 누룩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결과,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은 빵 반죽을 만들고 그것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집트 탈출을 앞둔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다. 구워서 즉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초저녁에 드리라고 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신 16:6).

유월절 희생 제물 잡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보면, 누가복음 23:44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을 제9시로 기록한 점이 흥미롭다. 이 시간은 유대식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해가 지는 때, 즉 초저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전 5:7)께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숨을 거두셨다.

따로 시간을 내어 구약성경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값진 일이다. 그렇게 배운 내용과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 여러 세부 사항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철저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글쓴이: 애런 코조트(Aaron Cozort)

Translated from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3, pgs. 78-79.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를 세워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미 오래전에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2,000년 동안 땅 위의 나라를 다스려 오셨다.

마가복음 9:1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능력과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이기 때문에 당시 그 자리에서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이었다. 그 ‘나라’가 세워진 후 세월이 흘렀고, 예수께서 나라의 설립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로부터 먼 훗날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사건일 수 없다.

골로새서 1:13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관해 말하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기원후 1세기에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9:1에 기록된 말씀을 하신 직후에 그의 나라가 설립되었고, 그 시기는 바울이 골로새서 1:13의 내용을 기록하기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하나님의 나라 =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그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가 되고(빌 3:20) 그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肢體), 즉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이 된다(골 1:18; 갈 3:26-27).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추측할 필요가

없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五旬節)에 예루살렘에서 ‘권능으로’ 그 나라가 왔음을 보여준다. 그날에 3,000명의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날에 교회,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물론이다! 사도행전 1:11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다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통치기구를 두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계시록 20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 그전에 숨을 거둔 사람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이고 “공중에서 주(主)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살전 4: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 때가 아닐 것이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전 15:24).

그리스도의 나라를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나라를 미래에서 찾으려 애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의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의 나라를 발견한 것이다!

글쓴이: 로이스 프레드릭(Royce Frederick)

Translated from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1, pgs. 90-91.

성경 원어산책

바실레이아 βασιλεία

‘왕권, 왕위’(눅 19:12), ‘왕국’(마 4:8) 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며, <마태복음> 등에서는 이 땅에 교회의 형태로 설립된 바실레이아를 강조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안에서 그를 섬긴다.

긍정적인 삶 가꾸기

머리말

우리가 가꾸는 매일의 삶은 창조주의 검사를 받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닌 비밀스러운 여러 욕망에 대해서까지 알고 계신다(시 139:1-12).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가꾸고 있을까? 우리의 삶은 강하고 긍정적이며 확고한가, 아니면 약하게 비틀거리는가?

삶을 가꾸는 것을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삶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청사진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삶'이라는 집을 짓기 바라신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초로 삼아 지어진다(고전 3:11, 12). 성경에는 그 일에 필요한 여러 청사진이 담겨 있다(벧후 1:3).

삶을 가꾸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계획이 있어야 하고, 자재가 있어야 하며, 도구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두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책은, 삶을 가꾸는 작업에 필요한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책은 1년 동안 삶을 가꾸는 데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담긴 26개 과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성경공부 시간에 쓸 수도 있으며, 가족끼리 갖는 경건의 시간에 사용하거나,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느 곳에서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연구할 때 필요한 것은 성경책이 전부이다. 성경책을 곁에 놓고 연구할 때 이 책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가 매우 유익해질 것이다.

이 자료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에 담아 놓은 제안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정적인 삶을 가꿀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전 15:58). 우리 모두 결승선을 통과하여 만날 수 있기 바란다.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계 2:10).

1988년 1월 15일

J. J. 터너

이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

《긍정적인 삶 가꾸기》 과정은 기쁜 마음으로 읽으며 연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과정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성경공부반을 만들어 진행할 수도 있다. 성경공부반이나 모임에서 이 과정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노력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이 과정은 성경책을 펴 놓고 진행하도록 구성되었다. 성경책을 펼치고 확인하며 연구해야 할 구절들이 중간중간 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며 공부하도록 하자.
2. 함께 공부하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자. 공부할 내용을 미리 읽고 연구해 오도록 하자.
3. 각 과의 뒷부분에 ‘추가 연구 및 논의’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맨 끝에는 여섯 가지 항목에 관해 각자 기록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다. 그 여섯 가지 항목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그 여섯 항목에 답해 나가는 가운데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
4. 적극적으로 사례를 찾으며 배우자. 각 과의 요점에 맞는 적절한 예를 찾는 자세를 유지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자.
5. 가르치는 사람은, 교재에 담긴 내용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 가르치도록 하자.
6. 가르치는 사람은, 다루는 자료와 관련하여 자기 나름의 질문을 준비하도록 하자.
7. 가르치는 사람은, 눈에 잘 들어오는 보조 자료를 준비하여 활용하자.
8. 성경공부 시간에 주제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9. 성경공부 시간을 마치기에 앞서, 각 자료에 관해 개인적인 적용을 하도

록 격려하는 일을 잊지 말자.

10. 성경공부 도입부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질문하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11. 공부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더 찾아 정리하도록 하자.
12. 시간이 된다면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하자(몇 개의 조로 나누어 토론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 내용 예: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활용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3.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책에서도 찾아 읽도록 권장하자. 오디오북도 좋다.
14.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참조: 약 1:5).
15. 각 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예: 의사, 상담가, 사역자 등).
16. 각 과의 마지막에는 <긍정적 행동의 증거>를 적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부분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하자.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도 입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삶의 과정’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우리는 ‘역경’이라는 이름의 대학교 학생이 되어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매일 밟아왔다. 그렇게 밟아온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고, 어떤 것들은 커다란 낙심을 안기거나 해롭기까지 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읊이 남긴 다음과 같은 말에 담긴 의미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욥 14:1). 읊이 한 말에서 “걱정”은 괴로움, 고생 등을 의미한다. 세상 속에서의 삶은 괴롭다! “그 누가 나의 괴롭 알려…”라는 흑인 영

가의 노랫말을 보면서 ‘예전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많을 것이다.

괴롭 속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요 3:1-5)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등록되어 성장과 섬김을 배우는 학생들이다.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다(참조: 벧후 1:3). 이제 우리는 삶의 문제들에 맞서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갖고 있다(참조: 엡 3:20).

그리스도의 학교 안에서 우리는 매일 시험을 치르지만(참조: 약 1:1-5), 그러한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는다(약 1:5; 고전 10:13).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롬 8:37).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졸업장’(즉 생명의 관)이 보장되어 있다(계 2:10; 딤후 4:7, 8).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 안에서 수강하는 모든 강좌는 ‘긍정적이고 영적인 삶 가꾸기’라는 과목과 관련되어 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삶’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구조물에 벽돌을 하나씩 쌓는다. 우리가 지어나가는 삶의 구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지어진다(엡 3:20).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는 삶이라는 구조물을 매우 조심스럽게 지어야 한다(고전 3:11-13). 영적인 삶의 집을 짓는 사람인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벧전 2:5).

필자가 이 과정을 마련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삶을 가꾸는 일에서 필자 자신이 도움을 얻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은, ‘긍정적인 삶 가꾸기’라는 기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며 길을 안내하고자 계획되었다. 필자의 안내에 잘 따라준다면 이 과정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제 이곳 도입부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내가 세워 놓은 계획:

2.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3. 삶에 관해 내가 지닌 기본적인 생각:
4. 내 삶에서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부분:
5. 나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가꾸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6. ‘긍정적인 삶 가꾸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
7. 삶의 각 분야에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한 가지씩만 써 보자.
 - 1) 사회적 측면:
 - 2) 가족 관계 측면:
 - 3) 신앙적 측면:
 - 4) 직업 측면:
 - 5) 여가 측면:
 - 6) 재정적 측면:
8.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9. 긍정적이고 영적인 성장이 나에게 지니는 중요성:
10. 1주일에 적어도 두 시간씩 이 교재를 활용하여 공부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매일 두루 다니며 긍정적인 삶을 가꿀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다. 우리 모두 결승선을 통과하여 만날 수 있기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계 2:10).

글쓴이: J. J. 터너

Building a Positive Life, translated with the permission of J. C. Choate Publications.

사역자의 영적 생활 **중간 점검**

소 개

《사역자의 영적 생활》 결론 부분 연재에 앞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제5장까지의 내용을 발췌하고 종합하여 신는다. 교회 안에서 특정 직분을 맡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글쓴이의 진심어린 통찰과 조언이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것이다.

차 례

- 제1장. 사역자의 영적 생활
- 제2장. 하나님을 향한 영적 특성
- 제3장. 숨어 있는 위험들
- 제4장. 영적 특성에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들
- 제5장.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 제6장.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연재 예정)
- 제7장. 나는 영적인가?(연재 예정)
- 제8장.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연재 예정)

글쓴이: E. W. 맥밀란(McMillan)

The Minister's Spiritual Life, translated with the permission.

제1장

사역자의 영적 생활(발췌)

〈고린도전서〉는 굵직한 죄만 해도 12가지를 범한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신령한[=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고전 2:11-14)라고 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1) 영적 특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질이다. (2) 영적 특성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신앙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분별(discern)’의 의미이다. . . .

그렇다면 ‘영적 특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도 그러하시지만, 영적 특성은 우리가 내리는 정의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적 특성은 말로 정의하기보다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즉 무엇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를 살펴서 이해해야 한다. 영적 특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영적 특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참된 가치 그리고 올바른 태도와 동기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인다. 영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과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기업가가 관심을 갖고 신앙 관련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진리를 가르치더라도 영적인 감동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사업가가 고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계획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기회를 통해 약간의 선이 행해질 수 있고, 그 선에 대해 기뻐할 수도 있지만, 행사를 주최한 기업의 동기는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전도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고 설교하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강한 갈망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 . .

전도자가 사역할 곳을 결정할 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사례비, 명성, 혹은 상대적인 편안함 등에 주로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은 관련된 여러 요소 가운데 영속적인 가치들에 기반하여 결정한다. 영속적인 가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 혹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처럼 가족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며 최대한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취지는, 옳음 그 자체를 위한 옳음, 진리 그 자체를 위한 진리, 사랑 그 자체를 위한 사랑, 명예 그 자체를 위한 명예,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를 위한 겸손이라고 하겠다.

2. 영적 특성은, 일시적 보상과 구원 관련 보상 중 어느 쪽에 더 역점을 두는지를 통해 많은 부분이 드러난다.

일시적 보상은 현실적 조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조건들에 따라 자부심이 충족되고, 명성을 누리며, 금전적 수입이 더 많아지는 등 여러 가치를 누리지만, 그러한 보상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주어진다.

구원 관련 보상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고 기록된 모세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모세가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씀은, 힘든 결정과 도전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일시적 보상이 아닌 구원 관련 보상을 택한 가장 인상적면서도 숭고한 예를 본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아래의 내용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기 바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던진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도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행 20:18-24 새번역).

... 바울은 오래 계속될 채찍질, 매질, 감옥에서 보낼 시간 등을 직면하고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제 앞날이 훤히 내다보입니다”라고 말한 셈이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가치없는 일임을 정확히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들과 덜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항상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올바른 방향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다. 아울러, 바울의 태도에는 ‘충성으로 신뢰함’이 담겨 있었다. 바울이 활동하기 전,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을 신뢰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영적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지쳤을 때도, 영적인 열정이 덜한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쉬는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영적 특성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정도를 통해,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수행하는 태도를 통해 많은 부분이 드러난다. 사람을 판단하는 유형을 보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해 놓고, 신뢰할 만함을 입증하면 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유형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다고 전제한 다음, 믿지 못할 모습이 드러날 경우 신뢰를 거두는 경우이다. “얼마 전에야 그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통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무언가 감추고 있어” 하는 식의 말을 우리는 흔히 듣는다. 그런데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 아직까지 별 문

제 없던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판단은, 판단받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보다는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책에서는 ‘영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러한 높은 수준의 특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① 영적 특성을 키우고자 한다면 좋은 내용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머릿속에 받아들인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좋은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게 하면 그 생각이 잊혀진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인격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성경, 성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좋은 읽기 자료들, 그리고 이성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것을 향하게 하는 읽기 자료까지 우리의 독서 습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적 특성을 키우고자 한다면 묵상해야 한다. 묵상은 매우 효과적이다. 묵상을 하면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

묵상을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믿는 바가 곧 우리 자신이 되는데, 우리는 묵상을 하며 생각한 것을 믿는다. 침묵 속 성찰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불과 같으며, 이러한 묵상으로부터 마음이 강해진다. 왜냐 하면 묵상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이의 지혜, 능력, 선하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묵상을 통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은 없다.

③ 영적 특성을 키우고자 한다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다. 인간의 척도로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사역자는 ‘포기’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근면과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그에 더하여, 사역자가 세우는 목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세우는 목표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이들의 성취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④ 영적 특성을 키우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부단한 자기 점검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즉 스스로 따져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주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위선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외식, 즉 위선은, 내가 더 큰 잘못을 지니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으려는 습관을 가리킨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 . .

자기 점검 내용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한 가지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포괄적인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것을 ‘사랑의 원리’라 부르기도 하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도가 동시대의 사람들과 겪은 갈등은 모세의 율법에 무어라 적혀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 . .

바람직한 영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즉각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즉각적인 것들은 궁극적인 것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중요하다. . . .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십자가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여정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 . . .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이 논의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내적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성에게 구애하는 단계에 있는 남자는 언제나 자신의 최선을 보여준다. 그는 사

려 깊게 행동하고, 생일을 비롯한 특별한 날들, 여러 가지 멋진 에티켓 등을 기억한다. 그 기간 동안 남자는 자기의 사랑이 깊고 진실하다고 고백할 것이다. 약혼녀에게 그러한 사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자는 남자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랑을 믿게 하는 데에는, 그녀를 위해 멋진 일을 많이 한 사려 깊은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도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을 입증하고 받아들여 결혼을 하지만,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 있고, 열정적인 사랑이 식을 수 있다. 남편이 결혼 후에도 모든 기념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가 예전처럼 강렬히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남자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기울이던 모든 세심함을 쉽게 기억해낼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랑 없이도 계속될 수 있지만, 사랑이 지속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역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역자가 진리를 정확히 전파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준행하며 예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희생적인 사랑의 극히 일부분만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간절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랑이 제시하고 안내하는 바에 따라 사역자가 맡은 의무들을 정확히 수행하게 될 것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모두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2장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발췌)

누군가 필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

님을 향하여 영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태도에 관한 명령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 마땅히 지녀야 할 영적 태도를 지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영적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수많은 탕자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1. 하나님을 신성하신 분으로 대하는 영적 태도.

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

②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이 두 개의 계명은 1,500년의 간격을 두고 주어졌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지고 몇 천 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시한 죄를 고백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진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영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감 가득한 믿음을 유지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는 점과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낀다. 영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의 양심은 자신의 무능을 자각하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를 갖고 곳곳이 서게 만든다....

2. 영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며 큰 영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 필자가 다니던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금요일 오후마다 어린이 연설회가 열렸다. 필자의 첫 연설 주제는 <작은 별>이라는 유명한 노래의 가사였다. 어머니께서 몇 주 동안 ‘연설’을 연습시키셨다. 필자는 뻔뻔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서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침을 삼키고 나서,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빠르게 가사를 내뱉은 후에, 마무리 인사를 하

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 날의 연설 내용에서 필자가 이해한 바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필자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 후 자라서 과학도가 되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고, 그 중에 어떤 별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별을 출발한 빛이 그렇게 빨리 여행을 해도 100만년이 걸려야 지구에 도달하게 됨을 배웠다. 우주의 광활함과 천체들이 자리한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깊은 영감을 받은 필자는 밤하늘을 보며 거의 말을 잃었다. 필자는 시편 19편 말씀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의미를 발견하여 입을 수 있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뒤 어느 맑은 날 밤, 마당으로 나간 필자는 가장 멀리 떨어진 별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반짝 반짝 작은 별…” 하고 빠르게 읊조리지 않았다. 천천히 묵상하듯, 귀 기울인 별들에게 이야기하듯, 필자는 이렇게 말했다.

반짝 ... 반짝 ... 작은 별,
너는 ... 너무 ... 놀라워*.
세상 ... 너머 ... 저 ... 높이,
하늘 ... 위에 ... 보석같이.

[*편집자 주: 미국인 저자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영어 가사를 직역했다.]

3. 영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을 수 없다.

학문의 발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학자들이 도입한 본문비평은 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사고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있던 자리를 이성 이 차지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성적인 결론들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 하에서는 믿음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 성경 말씀 전체를 믿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고자 할 때에도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위대한 학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물려받은 책 중의 책, 즉 성경에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조각들만 모아서

우리를 그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큰 위안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탐구 여정을 거침으로써 깊은 통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성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했고, 신약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그 사실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안내하는 등대 불빛으로 삼게 했다. **“믿음으로 행하고[=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살아가지] 아니함”**(고후 5:7)에 관해 말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전해주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몸이 유지되는 것이 분명하듯, 신앙인의 삶은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에서 자양분을 받아 성장한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이 지니고 있을 믿음과 관련하여, 암담한 모습을 예언해 놓으셨다. ‘믿음의 부재’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법정에서 다툼을 벌인 한 과부의 경우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가혹하고 불공정한 사람이었다. 여인에게게는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판에서 이길 희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여인은 집요하게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녀는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갔고,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찾아갔다. 재판관을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부당한 판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소했다. 재판관은 결국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명예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주 예수께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과부가 끈질김을 통해 불의한 재판관로부터 얻은 그것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선사한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으며, 그것도 신속히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슬픈 질문과 함께 말을 마치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암시는 상당히 암담하다. 그를 진정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 극소수일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계획하든, 어떤 희망을 논의하든,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각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한 상태에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자는 오래 산 축에 속하고, 굴곡진 삶을 산 축에 속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자로 판명되는 때도 있었고,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다. 필자의 삶에는 굴곡이 많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들이 참을 수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것처럼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야말로 최고의 믿음과 신뢰를 지닐 수 있는 때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다...

필자는 세상을 존재하게 한 무한한 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 필자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었던 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구했다는 것을 믿는다. 필자는 구약시대에 걸쳐 집행된 사형제도에 담긴 정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섭리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 필자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모두에 한계가 있기에,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선 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필자는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믿는다.

주 예수의 옆구리에서 흐른 소량의 피가 어떻게 에덴동산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샘을 열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필자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다. 필자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승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를 승천하게 한 능력,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인내심, 하늘에 우리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는 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필자는 믿는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천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며, 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렇다, 필자는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필자는 평강과 소망, 나의 모든 것을 발견한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빛줄기로서, 인간

존재의 어두운 삶과 그리스도의 빛나는 삶 사이를 이어준다. 믿음은 하나님의 발전기로서, 생명 없는 삶을 사는 사람과 생명을 공급하는 구주의 성품 사이에서 작동한다. 믿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조용한 목소리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확증’이기 때문이다(히 11:1). 믿음은 실패와 성공 사이의 차이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황량할 삶에서 믿음은 노래이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바로잡는 힘이며, 어두운 삶 속의 빛이자 미래를 보게 하는 눈이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이 혹독할수록 더 맑고 강해진다.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르칠 때나 실천할 때나,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에 걸렸을 때나, 친구들과 있던 적들과 있던,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이 닥치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자 두려움 없는 삶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빌 4장).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자.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4.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영광이지만, 그러한 삶의 성취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한다.

①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특히 로마 가톨릭은 커다란 신비주의로 옷을 입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교리를 지나치게 신봉하는 나머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보통 사람들”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다. . . .

② 개신교 신조를 쓴 사람들은 가톨릭의 오래된 믿음을 벗어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신앙생활을 원래의 근원인 성경으로 이끄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라고 했듯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신조들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신앙인들을 이끌었다. 신앙인들의 삶이 신조들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됨에 따라, 경주용 말이 재갈이 물린 채 서커스 공연장에서 힘껏 달리려 애쓰는 것과도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성적 결론이나 신학자들이 적어준 내용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 원

천(=성경)에서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야 한다. ...

③ 침례, 주의 만찬, 예배의 진정한 의미 등은 독단적인 교리나 신조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④ 구약성경에 제시된 십계명의 절반이 타인의 권리와 필요에 관해 윤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가르쳤을 뿐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가르칠 때’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지만, 영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

영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한다. 영적 특성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섬긴다.

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크신 명령이 아주 분명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암송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 명령에서 사용된 표현은 분명하다. “**온 천하 ...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집을 멀리 떠나 ‘선교사’로서 사역하지 않으면 영적 특성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크신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오직 영적인 품성을 지닌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임무이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임무를 받아들일 것이다.

⑥ 순전한 예배는 영이 경험하는 예배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에 잘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가리키는 예배의 주체는 진정한 자아이다. 각 사람의 삶은 여러 특질로 이루어진 정원과도 같다. 각각의 특질은 가시나 무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다. 우리들 각자가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느냐 못 가꾸느냐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영적 특성의 크기에 따라 결

정된다. 외부로부터 오는 억제와 통제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면 바람직한 특성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을 내면에 일구어 놓았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제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자기 내면을 얼마나 잘 다듬는가 하는 것이 영적 태도를 시험하는 척도이다.

제3장

숨어 있는 위험들(발췌)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들이 무엇인지 잘못 짐작하여 강조하는 문제에 관한 일반적 분석—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나 윤리 측면의 위험성 등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몇 가지 위험에 관해 다루고자 하는데, 이처럼 숨어있는 위험들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위험보다 훨씬 파괴적인 경우가 많다.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에 논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함께 비극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 논쟁을 계속하지만 서로의 차이점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이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서로 간에 느끼는 공감은 적어지고 거리는 더욱더 멀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일반론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 나름의 일반론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의견이 분명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분명한 용어를 썼고, 명확하게 말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자기만 확신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양쪽 모두 자기가 분명한 증거를 내놓으며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방금,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짐작에 빠져 끝없는 논쟁을 거듭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필자가 이번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서론 정도에 해당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 세 번째로 중요한 사안 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에 관한 의견은 나름대로의 짐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짐작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사건에 개입된 유대인들의 동기만을 놓고 본다면, 인식의 차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계시된 내용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의 유대인 종파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그리스도와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 내용에 관한 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많은 전통을 쌓아올렸고 그러한 것들이 모세의 율법 주변에 결합되어 있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과 각 종파의 전통을 지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공홀을 베풀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아주 음흉한 도덕적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묵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며 흐르던 생각은, 규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그릇된 짐작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바로 그 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매우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믿음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에 담긴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온 유명한 사건 역시 율법에 담긴 정신이 중요함이 드러난 예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주 예수 앞에서 밀어붙이듯 말했다. “우리는 저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주 예수께서는 그 지도자들이 모세의 명예를 존중하거나 여인을 교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행동이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자만심을 키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를 비난할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 그들에게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주거나 잘못된 가정이 맞다고 맞장구칠 경우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을 일축하시면서, 율법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 정

신에 맞는 본보기가 될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내세우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한 사람 씩 자리를 떠난다. 그러자 주 예수께서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여인을 바로잡아 주시고 살려주셨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특히 신약에서는, 법에 적힌 내용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먼저 그 법에 담긴 정신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이 정신을 어기면 율법 문구를 어긴 것보다 늘 더 심하게 나무라셨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분명한 예를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십일조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칭찬하시고 나서, “**율법의 더 중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홀히 하는 점을 나무라셨다. 이는 문자 그대로 십일조를 지키는 문자적 완벽함보다 정의롭고 긍휼히 여기며 믿는 마음가짐을 더 중요히 여기셨기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가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그 교회가 이런저런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에 대해 배운 사람이라면, 특정한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인 측면이 계발되어 있어야 하는데, 몇몇 사람에게는 그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더 나은 영적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논의에 숨어 있는 위험은, 지역교회를 이루는 청중이 지녀야 할 관심이나 능력 등을 제대로 신장시키지 못했다는 점보다는, 가르침을 이끌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 교회를 이루는 다수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 최고의 것’이며, 특정 행위나 특정 가르침의 오류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골고다가 상징하는 모든 가치를 발휘하려면 더 큰 사역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건설적이어야 한다. 교회를 이루는 다수는 이 섬김의 사역에

필요한 희생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들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깨어 있는 정신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문제에 관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관심과 협력을 고취하려면, ‘왜’와 ‘어떻게’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상이어야 한다. 교단을 만들지 말고 시류에 편승하지 말자는 설교와 글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왜 잘못된지에 관해, 이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와 마주친다. 이들은 ‘무엇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싶어 한다. 이들은 충분한 자금을 갖추고 있고 훈련되어 있다.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한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한다. 필자는 미국 전역의 형제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건설적이며 도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들이 기대하는 가르침은 숨겨진 동기나 감추어진 의도가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며 공개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타당하다.

교회를 이루는 다수는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의 신뢰를 받고 그들의 지원을 얻으려면 종파를 벗어나야 하고 개인적 편견이 없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가식적인 것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내용에 담긴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긍정적 특질들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어떠한 가르침이라도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을 크게 후원할 것이다.

1.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 특정 사안에 집착하는 경우 VS 그리스도교 정신을 강조하는 경우

여기서 필자가 진행하는 논의는 각 사안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그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나 두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무언가 중요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멀어지는 원인이 실제로 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든, 지체들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은 중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리하면, 각각의 사안이 중요하고, 그러한 사안들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들이 중요하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모두가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① 특정 조치를 취하는 태도가 그 조치 자체만큼이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대부분은 청중 속에 섞여 설교를 듣거나 간행물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어떤 대상을 심하게 정죄하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것처럼 정죄하는 내용을 듣거나 읽고 있노라면,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정죄하는 내용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세게 들어 올려 흔들고 때리고 방 한가운데로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아이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고래고래 흑독한 훈계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널 사랑하니까 널 벌주는 거야”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치장한다. 혼난 아이도, 옆에서 듣는 사람도, 그러한 식으로 가하는 벌이 사랑으로 행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거나 글을 읽으면서도, 폭력적으로 아이를 혼내는 부모의 경우처럼 신실성도 현실성도 없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② 편견이야말로 나쁜 태도를 가장 심하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일 것이다. 편견은 아주 교묘하고 기만적이며 교활하다. 편견은, 편견을 지닌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달래며 유혹한다. 편견은, 극단적인 편견을 지닌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낮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해주는 한편으로 그가 우월하다고 부추기면서 이런저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편견이 특정인을 향한 것이고 시기심까지 작동하고 있다면, 편견의 소리는 상대방의 단점에 관해 말해주고, 다른 사람의 재능이 열등하다고 확인해 주며, 삶이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편견의 소리는, 다른 사람이 정치적이며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

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편견이 지금 당장 속삭이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시기심에 빠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임이 분명하다. 내가 시기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

편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딱지를 붙이며 돌아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대방에게 적절하지 않고 상처를 주는 것들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러 터졌다’, ‘급진적이다’, ‘분과적이다’, ‘새로운 것만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써서 평가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평가가 적절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살면서 보았듯이,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낙인처럼 찍혀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죄와 관련하여 종종 간과하는 비극은, 단순히 누군가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는다는 데 있지 않다. 실제 비극은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중대하게 불의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을 천국 바깥쪽에 가두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부당한 판단은 불의이므로 천국에 합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불의하다고,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교제를 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신약시대의 법에 적힌 내용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교제를 끊는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의 법에 담긴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는 교제를 끊는 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교회의 지체들이, 신약시대의 법을 담고 있는 글자들이 중요하다, 그 안에 담긴 정신보다 중요하다 잘못 배운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면, 본보기를 통해 배웠다. 더 중요한 측면을 놓친 채 잘못 강조하는 것은 얇은 바다 표면 바로 아래에 깔린 모래톱과 같아서 영혼을 침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범하는 두 번째 잘못: 증상만 다루고 질병을 놓치는 것.

① 아픈 사람을 치료하러 온 의사가 자리에 앉아서 고열에 관한 장황한 설명만 한다면 그 의사는 멀지 않아 의사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의사라면 먼저 열이 나는 원인을 분석한 다음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

하고자 할 것이다.

② 현명한 미식축구 감독은 한 가지만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서 선수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선수들은 공을 갖고 상대방 골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은 다른 팀 선수 11명이 우리 팀과 골라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감독의 관심사는 그러한 상대 팀을 넘어서는 것이다. 감독은 먹히지 않았던 작전이나 자기 팀 선수들의 체중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감독은 부지런히 다니며 경기 전략을 짜고, 체격이 좋으면서도 기술이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 현명한 미식축구 감독은 자기가 이끄는 팀 선수들이 체격, 기술, 운영 등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면 선수들이 상대방 골라인을 넘어 득점할 것임을 알고 있다.

③ 가치 있는 많은 사역이, 현명하게 이끌지 못해서 실패한다. 교회의 여러 지체가 죄를 짓고 싶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만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을 보면, 몇 가지를 나열하는 데 그친다. ‘청년들이 요즘 보이고 있는 (문제) 행동’, ‘일부 지체들이 행하는 (그릇된) 행동’ 등을 나열하면서 몇 주 동안 좋게 ‘훈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한 인내 덕분에 몇몇 지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몇몇 지체를 죄에서 건져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질병이 여전히 남는다. 교회의 혈관이 영향을 받는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질병을 제거하지 않으면 몸이 낫지 않는다. 질병을 고치려면 그 질병 자체의 병원균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

④ 교회가 특정한 권징을 행하게 된 경우, 이는 교회 쪽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니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교회의 의무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인내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도력이 그렇게 잘 발휘되면 교회는 지금 권징을 받고 있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비난받는 문제들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한 문제들 대부분은 교회가 먼저 지도력을 발휘하여, 죄를 범할 욕구를 청년들에게서 없앨 수 있는 좋은 생각과 경

힘을 미리 제공했다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대체 수단을 통해 자기만족을 충족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죄는 일시적인 필요나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데 관여한다. 술을 마시는 것도, 취미 생활도, 것처럼 일시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일로 가득 채워서 취미생활을 고려할 여지가 없게 한다. 신앙에 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까지 있다. 만약 청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이 주는 여러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죄를 지어 잠깐 얻는 만족을 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유희과 극복의 과정을 미리 경험했고 그들을 끌어당길 유희들에 대해 알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 교회 안의 그러한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의무, 청년들이 건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할 의무를 안고 있다. 그러한 경험들이 유희들을 상쇄시키면서 청년들의 삶을 채울 것이다.

3. 질병 자체를 다루는 과정은 지체들의 영적인 취향이 더 강해지게 하고 건전한 활동이 더 많아지게 할 것임.

① 짧은 전도자가 강단에 올라 교회 안에서 보이는 세속적인 모습에 대해 설교했다. 짧은 소매 옷, 짧은 치마, 깊이 파인 드레스 등이 잘못되었다며 전도자는 자매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자매들 얼굴의 온갖 화장, 파마 머리 등이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취향을 따르며 세속적 충동에 호소하는 노력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전도자는 넥타이를 매고 광을 잘 낸 구두를 신고 머리를 잘 빚은 모습으로,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있었다. 설교하지 않을 때, 그는 소프트볼과 도미노 게임을 즐겼다. 이 전도자가 지체들을 바로잡겠다고 기운인 것과 같은 방식의 노력은, 사람들이 죄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는 역할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② 믿음이 파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파선하고, 신앙생활 자체에 관한 확신이 파선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구원에서 멀어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사랑·확신 등 먼저 갖출 필요가 있는 것들에 관해 최소한의 이해밖에 지니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처럼 먼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야 말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성취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4.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것 중 가장 잘못 다루어지는 것이 침례이다.

일반적인 예배에서는 청중과 전도자 모두 시간에 민감하다.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는 예배를 시작할 수 없다.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마침 기도는 ‘몇 시 몇 분’을 넘으면 안 된다. 청중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의 각 ‘순서’가 적절한 시간 단위로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오후 1시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 1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대 여섯 명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감동을 주었다. 설교 직후 초청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 젊은이들이 침례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전도자는 이 예배에서 마침 기도를 하기로 되어 있는 때가 몇 시 몇 분인지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음도 잊지 않고 있다. 전도자는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표하고, 한 사람씩 일어서게 하면서 침례와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 전도자는 믿음을 고백하는 각 사람에게 “선한 증언, 즉 좋은 고백을 하신 형제님/자매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두를 상대로 한 번만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할 수도 있다. 질문 횟수 자체를 줄여서, 침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 모두에게 한 번만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전도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도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지만, 침례식 전에 먼저 가야 하는 분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례의 성스러움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다.

침례가 물을 뿌리는 것도 붓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침례에 담긴 영적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침례가 물속에 장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침례에 담겨 있다.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 죽어 묻히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있음

을,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에게서 떨어지고 있고, 상징적인 무덤인 물 속에서 밖으로 나간 후에는 ‘새로운 삶’이라 불릴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며 기쁨으로 끌어안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면서 인간의 육신이 지니고 있던 물리적이고 육적인 속성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고 나올 때에는 욕구·즐거움·겉모습 등이 무가치한 것들로부터 가치 있는 것들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다시 ‘예배’라는 주제로 돌아가자. 필자는 어른이 되자마자 젊은 나이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노래로 드리는 예배에 악기 반주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말고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설교를 시작하고 여러 해가 지나서야 필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악기를 쓰면 찬양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래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크게 제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음악 소리가 자기들 귀에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에 따라 예배 음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계를 넘어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오늘날 너무 많다. 흥을 북돋는 음악을 원하거나, ‘더 빠르게’ 부르기를 원하거나 ‘새 노래’를 배우려고 하거나 ‘새 찬송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배에 관한 설교는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지 말지니라”라는 식의 내용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다. 악기를 써서 찬송하는 것과 같은 ‘혁신’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복음이 담긴 노래를 준비하여 예배하는 마음 없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악기를 가져와 연주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려 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된다. 이처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측면이 소홀히 되고 있고, 이에 는 교회 안의 영적 빈곤이 크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원칙은, 주님의 만찬을 연구할 때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여러 교단에서 만찬에 관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 그리고 주님의 날[=주일]마다 만나 떡을 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점 등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그런 식으

로 만찬에 대해 가르친 결과, 집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등을 맞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전혀 모른 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즐거운 여행을 떠나 낯선 곳에 가서는 아주 잠깐 짬을 내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나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주님의 만찬을 빠뜨리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만찬에 참여한다.

이들 모두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만 그들 중 누구의 눈에도 피 흘리며 고통받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무가치함에 양심이 찢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했듯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전달할 의무가 주어지는 자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전부이다. ‘주님의’ 만찬을 ‘주님의’ 날 행해야 한다는 사실, 만찬을 매주 행하지 않는 여러 교단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 ‘화체설’이라는 가톨릭 교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등의 지식을 그들은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을 갖춘 그들이 만찬이 진행되는 내내 진정한 예배의 감동을 체험하지 못한다. 예배에 임하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타당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 애절한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정 주제와 관련한 교리적 오류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그 사람이 교리적 측면에서 갖고 있는 이해도는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예배자의 마음에 따듯하게 빛나는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니고 있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을/를 향해서 입 맞추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두에 두신 모습은, 온전한 자아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식하며 일정한 시간 동안 자신을 쏟아 붓는 모습이었다. 필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했을 때, 설교 후에 한 사람이 필자에게 말했다. “제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은행에 갈 때와 같은 기분으로 교회당에 가거든요. 제 내면에서 차이를 못 느낍니다”라고 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더 좋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한 모든 일 속에는, 얇은 수면 아래의 모래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그 위험 요소가 바로 ‘영적인 가치들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이다. 감탄스러울 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영혼들이 그 위험한 모래톱에 걸려 파선을 당했다. 더 나은 영적 지도력을 지닌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주었더라면 그 영혼들은 감탄스러울 정도로 성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무리 및 제안

글을 쓰거나 설교를 전달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 목록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동안 사용될 시간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 전도자 한 사람이 45분 동안 말을 하고 마친다 하더라도 그는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것처럼 많은 시간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려면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가 전달된 후에 어떠한 식으로든 이어질 결과들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역시 중요하다.

2. “현재 상황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이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어떤 설교든 어떤 글이든 듣거나 읽으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설교 내용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자료의 재탕에 불과하고, 선교 안에 담긴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어서 설교가 매우 지루했던 기억을 우리 모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설교에 담긴 생각들이 남의 것인 경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 쓴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설교가 끼치는 ‘선(善)의 분량’이라는 면에서 판단해 보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가 전달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선과 비교한다면, 좋지 않은 설교를 듣느라 사용한 시간은 완전한 낭비에 가깝다.

3.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우리 모두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자. 우리 모두가 들었던 설교와 읽었던 글 가운데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전했다면 큰 효과를 보았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커다란 역효과를 낸 경우가 있었다. ...

... 성경의 가르침을 글과 말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도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과 판단 아래 놓여 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책임은 마찬가지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소망해야 한다.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다 분별력을 발휘하여 적절한 시기를 택하였다면, 그리고 적절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하게 했더라면 많은 갈등과 악감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바르게 대답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적어도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이 생각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동기를 내가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려 나온 전도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무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를 우리 모두는 보아 왔다. 그러한 전도자는 멀리 가려고 물을 열심히 차서 여기저기 흐트러뜨리지만 실제로 수영은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한 전도자의 태도와 노력은, 수영에 관해 이제 겨우 몇 가지를 배운 아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노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어때요?” 하고 외치는 것과 같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수영을 배우는 상황이고 그것도 초보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노력이 가상하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 장면이라면, 단에 선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은 비극이다. 말이나 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한다. 정말로 정직하다면, 적어도 합리적인 분량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다.

동기는 주제보다 판단하기 훨씬 어렵다. 자기가 지닌 동기가 무엇인지 판

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은 좋은 예가 된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사람은 편지에 따뜻한 사랑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에도 것처럼 부드러운 감정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려던 바울은, 그들을 “아끼려”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별하려는 마음이 그들을 위한 간절한 비탄으로 바뀔 때까지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림을 느꼈을 때 비로소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말과 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를 점검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 진행한 여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교회의 숨은 위험 가운데 일부분을 이루게 되고, 것처럼 숨은 위험 때문에 파선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배가 먼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 큰 바위가 물 위에 높이 솟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선장에게 위험 신호가 된다. 위험한 바위들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이다. [전도하는 사람은 혀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야고보는 혀의 파괴적인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혀는 …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라고 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말씀은 지옥의 영향에 저를 온전히 맡긴 채 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하며 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강단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지역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런 말을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보다 그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는 진심을 알아차린다. 전도자의 입을 통해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자기 기만이라는 숨은 암초에 부딪쳐 자기 자신의 영혼이 파선했다는 사실이 비극이고,

그릇된 판단으로 다른 많은 영혼을 위험한 모래톱으로 잘못 인도하여 파선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극이다.

제4장

영적 특성에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들(발췌)

‘영적 특성’이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 말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럴 때는 ‘영적 특성’이라는 표현이 모든 중요한 자질을 포함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자질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초가 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신속히 인식하고 도전을 받으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적 특성이 잘 자라도록 하는 분명한 뿌리들, 즉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한 뿌리들은 영적 특성이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사랑은 영적 특성에 많은 양분을 공급하는 뿌리이다.

사랑은 영적 특성에 양분을 공급한다. 그런데 사랑은 영적일 수도 있고, 비(非)영적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반(反)영적일 수도 있다. 예전에 일본에서 열린 부흥 모임에서, 필자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제로 강론하고 있었다. 강론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야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 모임에서는 강론에 이어 질문과 답변 시간을 늘 가졌는데, 한 대학생이 필자의 말을 인용한 후, “선생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선생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애가 아닐까요?” 하고 물었다. 필자는 대답하기를, 학생이 질문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의도로 타인을 사랑하는 경우라면 그 말이 맞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에 대해서까지도 그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학생은 이 대답에 만족해했다.

사랑이 매우 이기적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랑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격의 사랑도 아니다. 사랑이 가져다줄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영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는 목적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사랑은 영적이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한1서 2: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주님은 분산된 사랑을 금지하셨다. 그 정도까지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영적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진실해짐에 따라 영적인 삶은 더욱 튼튼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남편과 아내 사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든, 소유하는 기쁨과 소유되는 기쁨은 행복의 절정을 이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그와 똑같은 사랑을 공유한다고 생각할 때만큼 행복이 그렇게 심각하게 상처받는 때는 없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사랑으로 표현한다. 사랑이 순수하여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며 열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한 사랑에 담긴 영적 본질은 삶을 빠른 속도로 가꾸며 성장시킬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관찰한 바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아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큰 약점은, 나눔이 충분하지 않고 지속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커다란 영적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각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면, 더 큰 관대함과 더 뜨거운 열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각자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전쟁을 지속해야 하며, 다수가 타인을 위해 출전하는 거룩한 전쟁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야 한다.... 순수한 사랑은 영적인 자질들을 상대로 매우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나게 할 것이다.

2.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영적인 삶에 양분을 공급한다.

위의 소제목에 적은 대로, 믿음이 영적인 삶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그들이 지닌 믿음이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① 이성주의에 빠진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라기보다는 신앙에 ‘관한’ 이성적 결론들에 더 가깝다. 이성적 믿음을 지닌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성이 갖추고 있는 온전한 능력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성주의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이성주의자에게는 이성이 본질적으로 신(神)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성이 내리는 결론이 최종적이기 때문이다.

② 종파와 신학에 빠진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진정한 신앙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성의 눈으로만 본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4-7). [이성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상상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신학적 독단들이 배회해 왔다. 그러한 독단적인 교리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교리 등으로 이어졌다. ‘속죄’에 관한 독단적 교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 만큼이나 큰 영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기본으로 자리하고 있다.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독단적 교리에 대한 충성이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가르침보다 더 두드러질 때가 있다. 이성주의적 사고에 빠진 사람에게는 속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와 인내심이 없고, 신학적인 독단에 빠진 사람은 속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한 형태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순수한 신앙을 지닌 사람도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

려야 할 때가 있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믿음을 표현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순수한 신앙이 드러내는 모습에는 이성주의적 신앙이나 신학 기반 신앙이 드러내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기초가 작용하고 있다. 신학적인 신앙도, 이성주의에 빠진 신앙도, 순전한 영적 차원으로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③ 영적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성과 신조보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인다. 영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모험을 한다. 영적 신앙을 지닌 사람은 모세와 같이, 권좌와 궁전에 등을 돌린다. 화려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잠깐 사는 동안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한다. 영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은 욕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적으로 부당한 경험이라도 받아들인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확신한다. 영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은 주 예수처럼 자기를 비우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희생의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간다. 영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러한 기초에서 행하는 믿음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한다. 영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은 필요한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그 힘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전인격적 삶이 끊임없이 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다. 영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은 신성하게 다스리시는 섭리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로 인생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나날이 겪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완전한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러한 순종적인 정신이 영적 특성이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움이 되어 그러한 영적 신앙이 키워졌다.

3. 기도는 영적 특성을 자라게 한다.

기도에 주어지는 응답은 심리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설명하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 말하게 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욕구가 더 커지며, 그렇게 커진 욕망이 다시금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그런 다음에야 ‘기도’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말씀 드린다는 것이다. 특정 관심사에 대해 기도할 단계까지 왔다면 우리 쪽에

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치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심사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갈 정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 정도 관심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응답받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을 것도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을 써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인간의 모든 힘이나 작용을 넘어 작용하는 요소가 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고, 천사는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주었다(행 12장)....

로마에 갇힌 바울은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4-19).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만큼 병든 영혼이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성장 목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엡 4:13).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한 성취가 바울의 기도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딤후 2:1-2).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으니 통치자들이 올바른 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보다도 영혼과 이성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경우가 또 어디 있을까?

기도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를 일종의 의식으로 행하는 경우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험삼아 하는 기도와 체험으로 드리는 기도는 크게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기도를 통해 체험하게 될 영적 성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생각해보자.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주의 깊게 읽고 난 후 그러한 자질들이 자기 내면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그려 보라. 그는 기도 속에서 산상수훈에 담긴 품성을 천천히 되새긴다. 심령이 가난함, ... 애통함, ... 온유함, ... 의에 주리고 목마름, ... 긍휼히 여기기, ... 마음이 청결함, ... 화평하게 함,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용기를 잃지 않음 등의 덕목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된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범 기도’를 천천히 다시 읽어 보자. 그곳에 담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예수께서는 “이렇게...”라고 하여 ‘방식’을 강조하신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기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와 감사.
2.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걱정·근심 등이 없는 태도.
3.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및 온전한 신뢰, 우리 자신의 긍휼 실천.
4.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신뢰.
5. 흔들림 없는 순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

이러한 정신으로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높은 영적 인식과 성숙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교회 전체가 이처럼 높은 수준까지 성장했을 때 지니게 될 능력을 생각해보라.

위에 언급한 여러 측면의 영적 각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각각의 자아가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지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그가 읽어야 하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영적 성취를 먼저 보여줄 중요한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쪽에 있다. 전도자 디모데는 옳은 것의 본을 보여야 했으며 비난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다. 지역교회 지체들이 다음과 같이 속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교회에 이보다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 전도자님은 내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의 살아있는 본보기야.”

4. 결론 및 요약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하는 순서에서 필자가 살면서 관찰한 바를 몇 가지 더 소개하는 점에 대해 미리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영적 특성은 신비로운 마법도, 현실을 뛰어넘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또한 영적 특성은 상상 속에서 끌어낸 개념도 아니다. 영적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던 여러 성품을 종합한 전체이다. 영적 특성은 성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품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전달하며 형성된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내면에서 그토록 훌륭하게 묘사된 바로 그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성품은 한 번의 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갑작스러운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하며 성숙한다. 영적 특성에 영양을 공급하는 세 가지 경로는 (1)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계속 커지는 사랑, (2)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커지는 신뢰[즉 믿음], (3)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에 대하여 점점 더 커지는 자각, 그리고 그와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의 발전 등이다. 이처럼 세 겹으로 이루어지는 발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성품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간표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시험도 엄격하게 진행하되 그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이 매달 나오는 일정액의 보수에 맞추어져 있는 교사와, 가르치는 일을 잘 하고 싶기에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것처럼 사랑을 기울인 대가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교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삶에서 영적 특성은, 물을 빼는 곳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은 커다란 저수지와도 같다. 저수지에 물을 빼내는 곳이 여럿 있을 경우, 부담 없이 물을 빼내어 쓰다 보면 저수지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물이 말라버릴 수 있다.

독자들이 지금껏 보아 온 사람들 가운데는 훌륭한 믿음을 지니고 크나큰 인내를 발휘하며 선한 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한 믿음·인내·희생 등을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이 그러한 됴됨이를 키웠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이다. 그러한 덕목들은 커다란 저수지에서 매일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덕목들이 비롯되는 커다란 저장소를 우리는 영적 특성이라 부른다. 영적 특성은 하나의 큰 저수지와도 같다. 영적 특성이라는 이름의 저수지는 사랑, 믿음, 기도로 매일 보충된다.

필자가 첫 번째로 사역하던 지역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젊은 부인이 조언을 얻고자 필자를 찾아왔다. 그 여성은 필자가 사역하는 지역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지체가 아닌 남자와 결혼했다. 필자를 찾아온 그 여성과 필자는 각자 결혼하기 젊은 시절에 다른 도시에서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교회에 헌신한 장로였다. 필자는 여러 차례 그 장로님 덕에 머물곤 했다. 그녀가 필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신실해지고 싶어. 어릴 때 나는 나 자신과 약속하기를, 어른이 되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대로 하기도 했다.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독립도 했는데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내 감정 속에는 반항하는 무엇인가가 늘 있어.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그녀의 말이었다. 대화를 통해 필자는 그녀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자주 들었

고 ‘주일 학교’에 강제로 참석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딸에게 다른 무슨 일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지역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는데, 그러한 모임들은 그 나이의 학생이 별다른 호감을 느낄 수 없는 성격의 예배와 행사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필자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지체를 만났다. 그들도 앞에 예로 든 자매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어느 지역교회에서는 주일 오전에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저녁에 [교회당에]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떡을 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으니, 저는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내일 일을 잘 할 수 있게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약점 중 하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한 약점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광범위하게 드러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면, 다양한 지역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저녁 예배, 기도 모임, 주일 아침 성경공부 등에 나오라고 지체들에게 출석을 권하며 하는 말을 들어보라. 강단에 선 전도자가 부흥회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는 말,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라고 격려하는 말 등을 들어보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안내와 격려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광고’라고 부르는 순서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주 잘 하는 사람에게 맡기려 애쓰는 것이 여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 사람이 안내하면 더 많은 지체가 예배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 안에 자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약점은, 지체들의 삶 속에 영적 특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교회 안에 자리한 영적인 가치들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육체적 가치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몸집이 크고 튼튼한 청소년이 해야 할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난 뒤라면 저녁밥을 먹으러 오라고 어머니가 다그칠 필요가 없다.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은 그가 느끼는 식욕만으로도 식탁으로 갈 동기가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식구들과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저녁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식구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을

까? 식구들을 성실히 대하는 마음, 소원, 헌신, 애정 등이 있다면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집으로 향하게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은 자동으로 저녁이 차려진 식탁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대로 건강하고 충성스럽다면, 그리스도교가 잘 유지되는 것과 관련된 사안들로 참석을 권유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적인 '저수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잘 처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훌륭한 영적 특성이라는 저수지를 만들 수 있을까? 착한 성격을 지닌 어떤 사람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예배하러 갈 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하러 주일마다 갑니다. 예배를 빠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인 것 같아서 빠지지는 않지만, 특별한 즐거움을 안고 참석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이 말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이외의 다른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권유해도 그는 예배 이외의 모임에 거의 오지 않았다.

위에서 우리가 논의한 사례는 부정적인 경우였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더 잘 참석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따라하면 영적인 태도가 확실히 성장하는 비결 리스트'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움이 될만한 제안은 몇 가지 제시할 수 있겠다.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이 최고의 가르침을 담은 기록이라는 데에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산상수훈>은 심오한 철학적 사유나 어려운 종교적 난해를 예리하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철학적인 문제도, 종교적인 문제도 다루지 않는다.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 문화적 가치들을 높은 수준에서 드러내고, 매일의 삶에 작용하는 성품들을 간결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영적 특성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청결한 마음, 의롭게 살려는 갈증, 화평케 하여 평화를 가져옴, 온유함 등이 그것이다.

영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특성을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영적 특성을 지

닌 사람은 [실천적 측면과 함께] 고귀하고 거룩한 것 전체를 받아들일 태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영적 특성을 지닌 사람의 경우, 진정으로 위대한 자질들을 여러 해 동안 받아들여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 부르시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울 어머니가 될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던 당시, 하나님은 마리아를 변화시키거나 그녀의 품성을 신장시키려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때까지의 삶을 통해 성취한 모습이 훌륭하며, 마리아의 성품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일에 적합하다고 선언하고 계셨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지극히 명예로운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진행하려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녀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칭찬이었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젊은 그녀가 살아온 삶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었다.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을 지닌 마리아의 여왕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오래전부터 천사들이 보아 왔고, 하나님이 직접 보셨다. 마리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은 마리아가 삶 속 여러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꼭 지켜보셨다. 그러한 선택들이 쌓이는 가운데 그녀의 성품이 훌륭하게 형성되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최고의 찬사였다. 다른 처녀들이 이런저런 측면에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단계까지 떨어뜨릴 때, 마리아는 높은 수준에서 순수성을 유지하며 인생길을 걸어왔다. 다른 처녀들이 허영과 교만에 지배당하는 동안 마리아는 온유와 겸손을 마음에 가꾸어왔다. 다른 처녀들이 가치 없는 충동으로 남자들에게 매력있게 보이고자 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굳건한 선하심에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치들에 대해 상 주실 것을 믿고 행복해했다. 마리아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기꺼이 기다리는 마음,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정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든 기꺼이 따르려는 태도 등을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지닌 고귀한 영적 특성이었다.

마리아가 도달한 수준을 신격화하거나 그녀를 숭배하는 행위 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전혀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처녀에게 마리아가 도달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녀가 지닌 진정한 위대함을 본보기로 삼게 하셨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칭찬하는 말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던 가브리엘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인정하며 말씀하신 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처녀들은, 마리아가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리아가 받은 것과 똑같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하늘에서 인정된다.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천사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제5장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담긴 영적 의미 발췌 수록)

[*편집자 주: <개역개정판> 마가복음 15:24에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 순서에 따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역사의 전환점을 표시한다. 이 문장에 묘사된 행동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인 동시에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이 비치는 장면을 이루고 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앞서 진행된 역사를 알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구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이 땅에 온 그가 살아갈 삶에 관한 예언이 1,000회 이상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성경이 기록된 오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그 내용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삶은 구약성경 없이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성경에서 자신에 관해 예언한 내용 모두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신성한 존재라는 점, 모든 죄인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가득 채우셨다는 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 등에 관한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셨다는 의미였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내용에 담긴 뜻과 관련하여, 1 세기에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랑하던 자칭 가장 위대한 스승과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참뜻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선지자들’을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다. 예수는 그들이 해석한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사기꾼으로 낙인찍었다. 그들은 예수를 귀신들린 사람으로 보고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체계화된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에는 신학 체계라 부를 만한 것을 정립하려는 의도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사도들 역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에 담긴 논조가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새번역). 바울은 이 땅에 살았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 이 땅에서 겪은 죽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치심과 관련하여 수많은 책이 출판되었다. 그러한 책들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우리를 가운데는 예수님이 어떻게 잘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언어의 기술’은 아주 많이 배웠지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관한 최고 단계의 ‘삶의 기술’은 제대로 강조하며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활한 지식인이 예수의 가르침을 책잡으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공인과 죄인의 집에서 예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행위를 들어 “바로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세금 거두는 관리, 죄인들, 도덕적으로 가장 천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그들이 짓는 죄를 함께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베드로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편지에 썼다(벧전 2:22 새번역). 예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유대인의 전통에 순응하신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생활 속에 자리한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예수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가르침과 위대한 삶을 입증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수백 번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중요한 영역을 망라하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러한 주장을 증명하셨다. 마치 모든 유대인을 대변하듯, 한 위대한 유대인 지도자는 다 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행 4:16 새번역).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힘으로도 유대인들을 확신시킬 수 없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의심’은 다루기 가장 어려운 의심이다. ‘똑똑해지기 원치 않는 어리석음’ 만큼 어리석은 어리석음도 없다. ‘보려고 하지 않는 자’ 만큼 철저히 못 보는 사람도 없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의 기적 속에 담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면에 자리한 권능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고, 예수 자신이 살아 낸 ‘완벽한 삶’이라는 훨씬 더 큰 기적 역시 그들에게는 쓸모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모세를 해석했고, 그러한 해석에 비추어 예수가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바울이 빌립보서 2:5-11에 기록한 예수의 윤리적 특성에 관한 개요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지만, 그 고귀한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이다. 그는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유한하고 평범한 존재들이 겪는 공통적인 모든 경험에 일부러 자신을 복종시켰으며, 인류의 감독자 역할을 자처하지도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종의 역할을 맡으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이 들리는 사람은 인류의 가장 비천한 종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한 종의 역할을 맡으신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간직하는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재산뿐임을 가르치셨다. 참된 드러냄은 겸손뿐이며, 진정한 삶은 매일 계속되는 죽음뿐임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굴욕과 슬픔과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길뿐이라고 가르치셨다. 죄인들의 삶과 접촉하며 그들의 삶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세 차례 연속으로 물리치신 승리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존중하며하실 수 있는 행동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그렇게 하셨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靈)의 세계에서 찾아온 것은 베드로의 생각처럼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재판을 견디고, 사람들이 뱀의 침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혀 죄 많은 세상을 위해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일이었다. 한겨울 헤르몬 산을 덮은 하얀 눈은, 매 순간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품보다 희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그릇된 방식과 견해에 빠져 그리스도를 오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편집자 주: 막 14: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예수의 십자가 형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작용한 구체적 요인을 하나씩 검토한다. “무엇 때문에…”라고 바꾸어 질문해 보아도 좋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첫 번째 요인은 종교적 편견이었다. 바리새인·사두개인·서기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오랜 세월 동안 신임을 받아왔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에 관해 우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를 누리는 가운데 과도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전통**”이라고 부르는 긴 해석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들이 정립한 전통들은 특정 교리가 타당한지 아닌지 시험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정한 전통들을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인’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실 때, 그분의 깨끗한 양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바로 그 율법을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와 모세 사이에서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모세가 전한 뜻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것들, 그것들이 예수님과 충돌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직한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재검토하는 대신 불량배들을 시켜 예수님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다면 사람이 만든 전통들이 오늘날에는 힘을 잃었을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확신이 사라졌을까? ‘종교적 편견’이라는 악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가?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은 확신을 잃고, 평판이 훼손되며, 편협과 불필요한 소외 등을 겪지 않는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악은, ‘신실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들’이라는 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욕망들로부터 자유로우셨다. 전적으로 영적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유일한 소망은, 예수께서 지니셨던 것과 동일한 영적 갈망을 내면에 간직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두 번째 요인은 가롯 유다라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다. 수 세기 동안 뛰어난 학자들이 유다에 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께서 그를 유월절 식탁에서 지목하셨을 때 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다. 가롯 유다는 신뢰를

받았지만, 그 신뢰를 배신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간고(艱苦)를 많이” 겪은 사람인 예수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다. 배신이 일어나고 다음 날 해거름 전, 예수께서는 지극히 행복한 죽음을 맞으셨고 유다는 회한에 찬 자살로 죽음을 맞았다. 유다는 어둠을 가리개로 삼아 움직였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곳으로 살기가 득한 군중을 이끌고 온 그는, 예수의 얼굴에 배반의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의 손가락에서 무고한 피가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는 듯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우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돕기에는 너무 늦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유다의 속된 탐욕은 주님께 대해 미약하게나마 갖고 있던 영적 사랑을 압도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유다가 무덤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이 어린 후배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니, 교만과 야망으로 자신을 부추기면서 선배를 깎아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등에 창을 꽂는 브루투스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해 해를 입히며 친구의 적과 내통하는 가룟 유다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가룟 유다의 후손들은 어느 시대나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바람직한 영적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부족한 그 특성이,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풍성하게 수놓고 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세 번째 원인은 열한 사도들의 비겁함과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한 무관심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힘이 없었다. 로마제국에서 파견한 빌라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하라고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그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 애썼다. 열한 명의 충실한 사도가 수십 수백 명을 동원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한 사도는 자기 몸을 돌보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떨쩍이’ 떨어져 뒤따랐다. 대중은 명절 준비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의를 지키고 의인을 변호하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 남겨졌고 예수는 죽음을 맞이했다.

비겁함과 무관심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은 일을 하도록 심한 압력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보호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 대로변에서 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무관심하게 차를 몰고 그 옆을 지나가지 않는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죄악이 만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급진적인 사람이 발언권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지역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침묵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좋은 뜻과 선한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친구를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 자리한 두려움 가운데, 대중의 무관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들이 지닌 영적인 힘에는 위대한 일에 헌신하고 그에 따라 파생하는 일들을 받아들일 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네 번째 요인은 본디오 빌라도가 택한 정치적 편이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들이 “그들의 시기(猜忌)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알고 있었고,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거듭 말하였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가 “**이 의로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했다(마 27:24 킹제임스성경).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다른 누구보다 덜하지 않은 죄인이었다. 빌라도 앞에는 원칙을 방책과 맞바꾼 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나 빌라도는 원칙이 아닌 편의를 택하여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다. . . .

끝으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에 구원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 내다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무한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끝없는 의지로 결심하시며, 무한한 긍휼을 불어넣어, 무한한 능력으로 실행하신, 무한한 사랑이 영광을 발한 계획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장의 서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춘 장면이라고 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망설이셨다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는 기도가 나왔다. 것처럼 강렬한 힘이 발휘된 곳이 역사상 또 어디에 있었을까? 이처럼 큰 공허이 담긴 말을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믿음이 이보다 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까? 사랑이 이보다 더 잘 정제된 모습으로 드러난 적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 특성의 정점이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 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은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편집자 주: 마지막 두 행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놀랍고 신성한 그 사랑에
내 영혼, 생명, 나의 전부 드려야 하리.

작곡자가 들려주는 찬송 이야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작사·작곡 전상길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침례를 가르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찬송 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집에는 침례의 바른 원리로 창작된 찬송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거듭남을 주제로 한, 새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 중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라는 표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담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라고 가사를 썼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곡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 로마서 6:3

작사 작곡 전상길

전상길 형제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아카펠라 찬송의 실천적 활용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 있으며(학위 취득 예정: 2021년) 논문을 정리하여 책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배우고 확산한 대로 부를 수 있는 찬송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형식과 내용으로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지닌 이들을 위하여 아카펠라 찬송 홈페이지 <신령한 노래들>에 교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홈페이지: <http://spiritualsongs.kr>

“BE HOLY FOR JOY AND PEACE.”

‘거룩한 삶에 깃드는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무크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ISSN 2734-1577